



대학교육 정책포럼 개최, 대입제도의 선진화 방안 탐색

김수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10월 29일(목) 오후 1시30분~5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입 제도의 선진화 방안 탐색이란 주제로 제2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이배용 회장은 “미래형 인재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보다는 자신 스스로 학습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일 것이며, 대학은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진적 대입제도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진적 대입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배용 회장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이 참석하였다. 발표자 4명의 선진적 입시제도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입장에서의 토론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주호 제1차관은 선진형 대입전형 도입하고자 “대학교협 교육협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학 간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과 고



등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한 제1주제 「Trends in the Use of the SAT for College Admissions in the United States」에서 Cathy Wendler(Senior Research Director, 미국 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SAT가 여러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자료로 계속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 교육적 배경, 교육적 경험 등에 따른 다양한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제2주제 「대입전형 요소와 대학학업성취: 한양대 사례」를 발표한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은 한양대의 선진적 입시제도 적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성적 위주의 정량적에서 정성적으로 학생 선발 방향이 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정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정성적 전형요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주제 「학생 특성을 반영한 학생 선발: 카이스트 사례」에서 김도경 카이스트 입학처장은 “문제풀이식 면접이 아닌 종합적 역량평가를 통하여 성장 가능성 및 비전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영재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교교육 현장에서 교과 편중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 및 역량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카이스트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균형선발의 성과와 과제」의 마지막 주제에서 백순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양정호(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특목고 우위의

편견을 깨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입학자의 고교별 다양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춘우(서울경인 입학처장 협의회 회장), 임해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보연(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팀장), 김수연(가톨릭대 입학사정관실장), 오세목(중동고 교감), 김규환(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이 참석하여 선진적 대입제도는 입학전형 특징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며 현재 대입제도보다 종합적이고 질적 평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입학 전형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브리지(Bridge) 프로그램 운영,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입학사정관 신분의 안정 등이 제언되었다.

이날 포럼은 미래형 인재 선발을 위한 대입제도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에서 추진되어야 할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

필 / 자 / 소 / 개

김수경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행정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논문으로는 “대학특성화 재정지원 전략과 효과성 분석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분석”, “취업후 상황 학자금 대출제도의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효과 분석”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